

데스크 시각

임계점에 달한 호남 민심



임 동 옥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내년 20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석 연휴 기간 표출된 호남 민심이 주목받고 있다. 호남의 추석 민심은 수도권 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야권 재편 등 내년 총선 구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추석 연휴 기간 나타난 호남 민심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실망과 분노'로 집약되고 있다. 바닥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과 고민이 추석 모임의 전반적인 '화두'였다.

답답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지만 '비판과 성토'가 주를 이뤘다. 국민대통합을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는 분노를 넘어 아예 '말을 말자'는 체념의 분위기가 강했다.

이 아닌 '필수'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야권 분야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압담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듯, 신당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신당의 정치적 실체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는 일단 유보하며 주의 깊게 관찰하자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었다.

야권의 창조적 재편 이뤄지나

새정치연합이 정권 창출의 희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호남 민심이 신당을 매개로 야권의 창조적 재편에 나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은편클럽



류 동 훈 광주시 광산구 주민자치과

필자는 행사를 운영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서울? 아닌 세종시? 그렇다면,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태양이라는 사람,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나온다.

6차산업으로 창조하는 마을공동체

우주를 창조를 해가는 것이 바로 '마을만들기'다. 최근에 6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차(농업생산)×2차(가공)×3차(유통, 체험, 관광, 문화)가 융복합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6차산업이다.

유한 6차산업의 마을로 만들어 낸 것이다. 다랭이 논과 바다에서 난 지역의 특산물로 식당도 운영하고, 막걸리, 흑마늘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지역의 다랭이 논을 관광상품화 하여 숙박, 체험 상품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기고



정 준 모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전시협력감독

요즘 요리프로그램이 대세 아니 권세를 누리고 있다. 이는 요리사들의 상상력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맛과 모양 때문일 것이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재료를 가지고 특별한 맛을 내는데다 보기마저 예쁘다.

혼자서도 잘해요, 현대미술 보기

의 장이자 궁극의 라면 맛을 향한 '고난의 행군'이다. 시대가 먼저 변해 사람이 변하는 것인지 아닌 그 반대인지 알수 없지만 우리는 꾸준히 변화할 것을 정제모를 곁으로부터 주문받고 있다.

은 관람자의 입장에서 화가의 그 중요한 생각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해야하므로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현대미술은 '압박'이다. 어디 쉬운 일이 있을까만. '빨개면'을 먹어보아 때문 맛인지 그저 색만 빨간 것인지 알 수 있을 중요한 것은 주제인 나의 행동이고 생각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아르바이트 대학생 권익 보호 절실하다

광주 지역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각종 법규 위반과 인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찾기 못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례가 더욱 늘고 있다는 것이다.

깨끗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리급 비용으로 일당을 빼앗는 몰염치한 업주도 있었다. 게다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폭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교통 체증으로 30분 정도만 늦어도 벌금으로 1만 원을 뜯는 사례도 있었다.

추석 민심 왜곡하는 야권에 무슨 희망 있나

추석 연휴를 보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해 온 광주·전남의 민심은 극과 극으로 갈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과 단결을 바란다는 주류 측의 진단에 현 체제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신당파'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권자의 마음은 편치 않다. 새정치연합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신당파 등이 연일 치고받는 모습에 민초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제발 집안싸움 좀 그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추석 민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전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 격 해석은 또 한 번 지지자들을 절망케 할 뿐이다.

無等鼓 500년 조선왕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들라면 아마도 사도세자를 첫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762년 7월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힌 뒤 8일 만에 죽음이 돼야 나올 수밖에 없었던 비련의 황태자이기 때문이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Gwangju)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